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채 진 영¹⁾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애착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이 종단연구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2004년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고자 총 2,694명(남아 1,435명, 여아 1,25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SPSS Win 19.0과 AMOS 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본적인 자료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Cronbach의 α 계수,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고,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통한 조절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Ping(1996)의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공격성은 학업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모애착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부모애착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성은 부모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공격성 표출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전기지인 부모의 세심한 배려와 애정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학업스트레스, 공격성, 부모애착, 조절효과

* 이 논문은 2011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011년 11월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1) 교신저자 :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Email : jyachae@jbnu.ac.kr)

I. 서론

근래 우리 사회의 범죄 발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14세 미만의 범죄율이 급속도로 증가해 2007년에 499건이었던 것에 비해 2008년에는 3,482건으로 무려 7배나 증가하였다(대검찰청, 2009). 아동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며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특히 또래집단을 통해 사회화가 주로 이루어지는 아동기(정옥분, 2002)의 공격성은 또래집단으로부터 당하는 거부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Coie & Dodge, 1998)이다. 아동기의 공격성은 학교생활 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품행장애 등의 반사회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Michiels, Grietens, Onghena, & Kuppens, 2008), 아동기 이후 더욱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기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예측변인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제 3의 변인, 즉 조절변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증가하는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아동기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이다(Cohen & Wills, 1985). 자신의 스트레스가 높으면 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적대적 공격성 형태의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정옥분, 2002). DeLongis, Folkman과 Lazarus(1988)는 한번의 중대한 삶의 사건이 주는 커다란 스트레스보다 반복적인 사건으로 인해 누적된 스트

레스가 정서적인 문제를 더 잘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Agnew (1992, 2001)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GST)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스트레스 같은 긴장되는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분노와 좌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최근 아동의 공격성의 주원인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지목되고 있다. 국내 아동이 느끼는 스트레스 가운데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추정옥, 2000; 한미현 1996)되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아동청소년안전 및 건강 실태조사(2010)에 의하면 45%에 이르는 초등학생이 학업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처럼 학업성취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대한 부담은 성적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재홍, 김미정, 2009; 문경숙, 2008). 국가청소년위원회(2007)의 조사 결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1998년 57.1%에서 2006년에는 67%로 증가하였고, 통계청이 실시한 조사(2008)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81%(복수응답 기준)가 공부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 자료(2011b)에 의하면, 심지어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86.8%)이 중고등학생보다도 더 높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회의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받는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의 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발표하였다(유엔, 한국 아

동정책조정위 ‘개점휴업’ 우려, 2011. 10. 8). 학습과 관련된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공격적 성향이 높아진다는 한 조사 결과(과도한 국영수 과외, 자녀 공격성 키운다, 2010. 1. 17)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경쟁적인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학업 열기는 아동의 공격성 및 자살 증가 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이 겪고 있는 학업스트레스 수위는 국제 사회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나라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동안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 학업, 대인관계, 외모 등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한 일상스트레스를 살펴보았거나(권은영, 정현희, 2011; 김지현, 박경자, 2006; 서미정, 2011; 오인수, 2009; 한미현, 1996),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김효진, 유형근, 권순영, 2011) 등이었다. 따라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심각한 수준의 누적된 학업스트레스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안정성 여부는 아동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부모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경험에 질에 따라 애착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애착관계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에 영

향을 미친다(Kerns, 2008).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뜻한다. 이렇게 정서조절 능력이 뛰어난 아동은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유진, 2006). 10-14세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신 연구(Sarracino, Presaghi, Degni, & Innamorati, 2011)에서는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문제행동을 보이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체적 학대나 방임 등을 통해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한영옥, 2002; Earl & Burns, 2009; Finzi, Ram, Har-Even, Shnit, & Raffaelli, 2000). 즉, 아동의 부모애착 안정여부는 공격적인 행동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초등학교 4학년의 공격성에 대한 5년간 비교한 종단연구(김재철, 성경주, 최원형, 2010) 결과, 아동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가운데 부모애착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이는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관계를 통해 형성된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과 안전기지의 결핍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Michiels, et al., 2008)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는 기간은 애착관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로 또래와의 애착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로부터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기도 한다(Allen, 2008). Markiewics, Lawford, Doyle과 Haggart(2006)는 이러한 애착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후기 청소년기까지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

게 되는 안전한 피난처 및 안전기지로써의 주된 애착 대상은 여전히 부모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부모를 주요 애착인물로 여기고 근접성을 추구하던 유아기 때와는 달리 아동기 때 비록 근접성은 감소하더라도 변함없이 부모를 유효한 애착인물로 여기며 정서적 지지를 받기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insworth, 1990). 즉 또래집단에서의 사회화 기능이 강화되는 아동기일지라도 여전히 부모의 영향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 시작되는 4학년 학생이 과중해지는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유효한 주요애착인물인 부모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안정애착은 아동이 느끼는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부모애착의 조절변인 역할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부모애착, 공격성 등 이 세 변인의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내 사정상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공격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아동의 심리적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 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선택한 이유는 개인차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함을 보여 대부분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사춘기를 맞이하여 반항심도 생기며, 저학년 때와는 달리 고학년이 되면서 교과 과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부모와 아동 모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신의진, 2008)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학업성취에 대한 근면성이 요구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열등감으로 인해 부적응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Erikson, 1950/1963).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아동의 주양육자인 부모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은 공격성과 각각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애착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단연구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법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 2,844명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시스템 결측과 사용자 결측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총 2,69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435명(53.3%), 여학생이 1,259명(46.7%)

이었다. 가족구성형태는 양부모가정 2,607명 (96.8%), 한부모가정 71명(2.7%), 재혼가정 16명 (.6%)이며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살펴보는 본 연구의 특성상 양부모사망 가정은 제외되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이하 145명(5.4%), 고졸 1,168명(43.4%), 대졸 1,206명(44.8%), 대학원 이상 175명(6.5%)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186명(6.9%), 고졸 1,636명(67.6%), 대졸 831명(30.9%), 대학원 이상 41명(1.5%)이었다. 가계 월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172명(6.4%), 101~200만원 774명(28.7%), 201~300만원 864명(32.1%), 301~400만원 478명(17.7%), 401만원

이상이 406명(15.1%)이었다. 2011년 기준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89만 8천원(통계청, 2011a)인 것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대상 가운데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인 가정은 전체 84.9%이었으므로 연구대상의 경제적 수준은 대부분 평균 이하이라고 할 수 있다.

2. 측정도구

학업스트레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 4학년 대상 설문지 중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4문항을 사용

표 1. 측정변인의 질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2,694)

잠재 변수	관측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학업 스트레스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2.09	1.15	.72	-.48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2.05	1.18	.83	-.33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2.32	1.13	.49	-.86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27	1.23	.58	-.70
부모 애착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70	1.05	-.45	-.33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4.22	.92	-.97	.2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3.92	.96	-.54	-.31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3.23	1.21	-.16	-.82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3.58	1.22	-.49	-.71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3.77	1.09	-.52	-.51
공격성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2.85	1.20	.01	-.83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3.35	1.10	-.40	-.3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1.82	.91	1.06	.94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2.36	1.26	.90	-.39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2.39	1.16	.84	-.15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1.91	1.10	1.10	.53

하였으며,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각 문항은 ‘그런 적 없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hronbach의 α 계수는 .83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애착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 4학년 대상설문지 중 부모애착과 관련된 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hronbach의 α 계수는 .76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 4학년 대상설문지 중 공격성과 관련된 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hronbach의 α 계수는 .76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자신의 공격성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9.0과 AMOS 7.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과 전반적

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들의 정규성을 알아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고,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과거에는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변수의 측정오차를 모형에 반영하지 않는 한계로 인해 주효과변수와 조절효과변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축소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서영석, 2010). 예측변수와 조절변수가 모두 연속변수일 경우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조절효과 검증이 회귀분석보다 더 적합하다하여 근래에는 이러한 검증법이 더 각광을 받고 있다(Schumacker & Lomax, 2010). 이에 따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Ping (1996)이 제시한 2단계 접근방식으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한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상호작용항은 단일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주효과변수와 조절효과변수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지표변수들을 각각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서영석, 2010).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는 최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상대적 적합지수인 GFI (Goodness-of-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절대적 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통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및 부모애착과 공격성의 관계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Ping(1996)의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우선 자료의 정상성과 관측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점검한다. 개별 변인의 정상성은 왜도와 첨도를 통해 확인하는데, 왜도<2, 첨도<4이면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앞서 살펴본 표 1과 같이 본 연구의 모든 관측변수들은 이 기준에 적합하므로 각각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각 변인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부모애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공격성은 문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공격성 관련 6문항 전체의 평균값은 2.45로 보통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학업스트레스1~4, 부모애착1~6, 공격성1~6 등 총 16개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업스트레스1~4와 부모애착1~6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08~-.22로 각각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업스트레스1~4와 공격성1~6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12~.26으로 각각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애착1~6과 공격성1~6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06~-.12로 각각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 관측변수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학업스트레스 1	1.00															
2. 학업스트레스 2	.61**	1.00														
3. 학업스트레스 3	.48**	.63**	1.00													
4. 학업스트레스 4	.43**	.52**	.67**	1.00												
5. 부모애착 1	-.11**	-.12**	-.11**	-.16**	1.00											
6. 부모애착 2	-.17**	-.17**	-.13**	-.17**	.38**	1.00										
7. 부모애착 3	-.19**	-.19**	-.18**	-.22**	.37**	.52**	1.00									
8. 부모애착 4	-.08**	-.09**	-.09**	-.13**	.27**	.26**	.33**	1.00								
9. 부모애착 5	-.11**	-.12**	-.10**	-.13**	.33**	.29**	.31**	.31**	1.00							
10. 부모애착 6	-.16**	-.18**	-.14**	-.17**	.42**	.40**	.40**	.31**	.46**	1.00						
11. 공격성 1	.16**	.18**	.21**	.22**	-.06**	-.07**	-.08**	-.07**	-.06**	-.07**	1.00					
12. 공격성 2	.12**	.13**	.17**	.20**	-.06**	-.07**	-.06**	-.06**	-.08**	-.07**	.49**	1.00				
13. 공격성 3	.18**	.16**	.18**	.19**	-.06**	-.09**	-.11**	-.06**	-.06**	-.09**	.36**	.30**	1.00			
14. 공격성 4	.20**	.22**	.23**	.25**	-.06**	-.08**	-.12**	-.06**	-.06**	-.08**	.38**	.26**	.33**	1.00		
15. 공격성 5	.15**	.17**	.16**	.20**	-.08**	-.10**	-.11**	-.07**	-.09**	-.10**	.31**	.21**	.32**	.37**	1.00	
16. 공격성 6	.23**	.24**	.23**	.26**	-.06**	-.08**	-.12**	-.06**	-.06**	-.08**	.31**	.23**	.38**	.42**	.47**	1.00

** $p < .01$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1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아동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아동은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적이었으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높거나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한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2.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애착의 조절효과

측정모형 분석

Ping(1996)의 2단계 접근방식의 1단계로 관측변수의 정상성을 파악하고, 측정모형을 구축하여 적합도를 확인하며, 요인부하량, 분산, 오차분산 및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의 관측변인들과 잠재변수

를 이용하여 구축한 측정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이 모형의 적합도는 GFI=.944, TLI=.902, CFI=.918, RMSEA=.060으로 수용할 만 하였다. 측정모형의 각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의 요인부하량은 표 3과 같이 .466~.820이며,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측정모형에서 학업스트레스, 부모애착, 공격성 등의 3개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들은 모두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잠재변수들 간 경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학업스트레스와 공격성 간에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계수도 .437로 가장 높았다.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 간, 부모애착과 공격성 간에는 각각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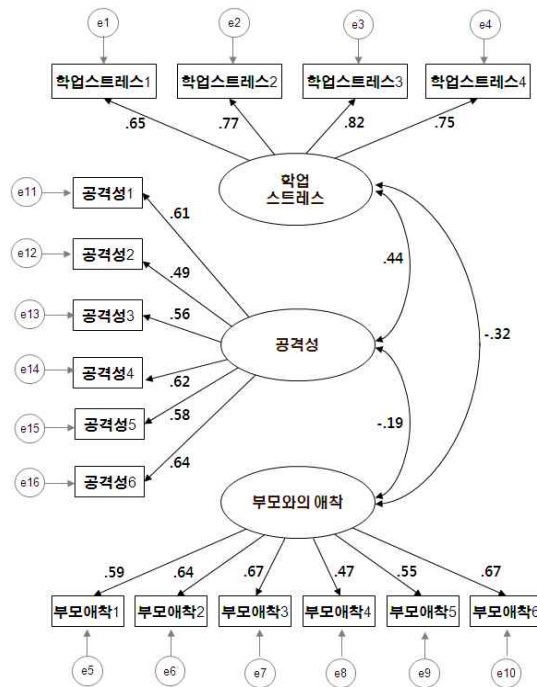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표 3. 측정모형의 계수 추정치

잠재변수	관측변수	B	β	S.E.	t	분산	오차분산
학업스트레스	→ 학업스트레스1	1.000	.648				.023
	→ 학업스트레스2	1.224	.773	.037	32.683***	.552	.021
	→ 학업스트레스3	1.374	.820	.041	33.787***		.022
	→ 학업스트레스4	1.233	.745	.039	31.845***		.023
부모애착	→ 부모애착1	1.000	.588				.023
	→ 부모애착2	.896	.643	.039	23.053***	.439	.017
	→ 부모애착3	.967	.667	.041	23.505***		.018
	→ 부모애착4	.849	.466	.045	18.699***		.033
	→ 부모애착5	.953	.546	.043	21.883***		.031
	→ 부모애착6	1.100	.672	.047	23.593***		.022
공격성	→ 공격성1	1.000	.613				.898
	→ 공격성2	.728	.490	.036	20.400***	.542	.911
	→ 공격성3	.697	.564	.031	22.734***		.563
	→ 공격성4	1.065	.622	.044	24.314***		.975
	→ 공격성5	.921	.584	.040	23.292***		.890
	→ 공격성6	.956	.643	.038	24.842***		.702

*** $p < .001$

표 4. 잠재변수 간 공분산과 상관관계

잠재변수경로			공분산	상관관계
학업스트레스	↔	공격성	.239	.437***
학업스트레스	↔	부모애착	-.155	-.316***
부모애착	↔	공격성	-.093	-.190***

*** $p < .001$

조절모형 검증

각 변인들의 예상된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한 조절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이 모형의 적합도는 GFI=.950, TLI=.931, CFI=.942, RMSEA=.062로 수용할 만 하였다. 조절모형의 검증

을 위한 Ping(1996)의 2단계 접근방식의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산출한 주효과변인인 학업스트레스와 조절효과변인인 부모애착의 분산과 측정오차 분산을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의 분산, 상호작용항 지표변수의 요인계수 및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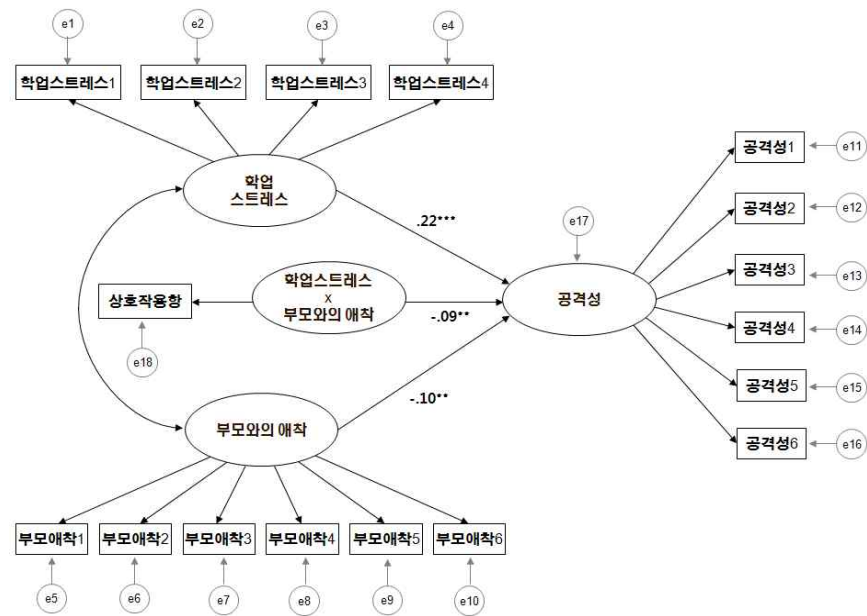


그림 2. 조절모형

표 5. 조절효과 상호작용모델의 계수 추정치

계수경로			B	β	S.E.	t
학업스트레스	→	공격성	.216	.215	.023	3.848***
부모애착	→	공격성	-.087	-.098	.021	-10.096**
학업스트레스 x 부모애착	→	공격성	-.002	-.088	.000	-8.730**

** $p < .01$, *** $p < .001$

차분산을 계산하였다¹⁾. 이러한 계산을 통해 얻은 상호작용항의 분산값 .553, 상호작용항 지표변수의 요인계수 1.162, 상호작용항 지표변수의 오차분산 .455을 각각 조절모형(그림

2)에 고정시킨 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beta = .215$, $p < .001$), 부모애착이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beta = -.098$, $p < .01$),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이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beta = -.088$, $p < .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의 상호작용항에서 종속변인인 공격성에 이르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애착의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

1) $\text{Var}(XZ) = \text{Var}(X)\text{Var}(Z) + \text{Cov}(X, Z)^2$,

$$\Gamma_X \Gamma_Z = (\beta_{X1} + \beta_{X2} + \dots + \beta_{Xn})/n(X)(\beta_{Z1} + \beta_{Z2} + \dots + \beta_{Zn})/n(Z),$$

$$\Theta_{XZ} = \Gamma_X^2 \text{Var}(X)\Theta_Z + \Gamma_Z^2 \text{Var}(Z)\Theta_X + \Theta_X \Theta_Z$$

(Var = 분산, X = 주효과변인, Z = 조절효과변인, XZ = 상호작용항, Γ = 요인계수, n = 잠재변인 갯수, Θ = 오차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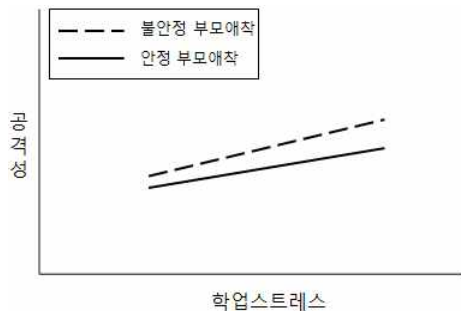


그림 3. 부모애착의 조절효과

되었다. 즉, 아동의 부모애착이 안정적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아서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공격성이 낮았고, 학업스트레스가 높더라도 공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Ping(1996)의 2단계 접근방식을 이용한 모형검증을 통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애착이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은 공격성과 각각 유의한 관계를 보여,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부모애착은 공격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우선 학업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련성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학업스트레스를 포

함한 일상스트레스가 아동의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지현, 박경자, 2006; 오인수, 2009)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학업성취에 따른 부담과 좌절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공격적인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일반긴장이론(GST, Agnew, 1992, 2001)에 부합하는 결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이 표출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한 14세 미만 아동의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학업에 대한 과열 경쟁으로 국내 아동이 받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을 정도이다.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가율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보다도 더 높다는 오늘날의 현실로 볼 때, 사회적 문제가 되는 아동의 공격성 증가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일 것일지도 모른다. 국내에서 학업 열기가 과열된 지역에 사교육 학원 뿐 아니라 소아정신클리닉 또는 상담센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아동의 정상적인 사회성 발달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공격적인 성향은 낮다는 본 연구결과는 부모애착의 안정성과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한영옥, 2002; Earl & Burns, 2009; Sarracino, et al., 2011)를 지지하였다. 아동이 부모와 형성한 부정적인 애착관계가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애정이 부족하고 냉담하고 거부적이며 체벌을 가하는 부모는 스스

로가 부정적인 역할모델이 되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맺은 애착은 전생애에 걸쳐 중요한 역할(Ainsworth, 1990; Bowlby, 1969/1982)을 하고,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정신적 안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Goldberg, 2000). 즉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을 바탕으로 타인과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애정적이고, 일관적이며 민감한 모습을 통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를 심리적 안식처로 삼아 부모에게 지지받고 위로 받음으로써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을 덜 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는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긍정적인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전 기지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살펴 본 결과,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성은 완화되었다. 반면, 부모와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애착이 아동의 심리정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Markiewicz, et al., 2006)와 비슷

한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학업과 관련된 부담, 실패 또는 좌절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아동의 공격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도 부모애착의 안정성 여부인 것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모들은 전통적으로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중요하게 여겨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부모는 자녀에게 학업 성취의 열망과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오히려 부모가 아동에게 학업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기도 한다(박서연, 정영숙, 2010). 부모의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은 아동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되며, 동시에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학업 성취 실패에 따른 좌절이 아동의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Kim과 Clifford(1988)은 실패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이라 정의하며 개인의 다양한 내적 또는 외적 변인들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실패내성의 외적 변인으로 부모애착을 살펴본 황매향, 장수영 및 유성경(2007)은 초등학생의 실패내성은 아버지애착과 어머니애착과 각각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 중학생의 실패내성은 부모애착과 관계가 없었고, 고등학생의 실패내성은 아버지애착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패 및 좌절을 경험한 후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인 행동의 경향은 부모와 친밀하고 신뢰스러운 관계를 맺은 아동에게서 적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생이 부담, 실패,

좌절 등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부모는 가장 의지하게 되는 안식처이자 안전기지인 것이다(황매향 등, 2007; Markiewics, et al., 2006). 따라서 아동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성이 완화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안정적인 부모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보호요인이 된다는 것을 부모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과도한 학업 경쟁사회에서 아동이 받는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미성년자의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관계에서 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아동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성을 악화 또는 악화시키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자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업에 대한 경쟁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4년도에 실시한 전국 조사 자료가 사용되었지만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델을 검증하여 본다면 사회적 문제를 보다 시기적절하게 반영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아동이 고학년이 될수록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애착, 공격성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종단적인 분석을 한다면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를 더욱 폭넓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홍, 김미정 (2009). 초등학교 학생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방어기제들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22(4), 161-183.
- 과도한 국영수 과외, 자녀 공격성 키운다 (2010. 1. 17). *연합뉴스*.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청소년백서*.
- 권은영, 정현희 (2011).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변화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6), 29-54.
- 김재철, 성경주, 최원형 (2010).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의 영향 비교. *아동교육*, 19(1), 97-113.
- 김지현, 박경자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 김효진, 유형근, 권순영 (2011).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20(1), 131-149.
- 대검찰청 (2009). *범죄분석*.
- 문경숙 (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자기통제 및 감정조절의 역할. *아동학회지*, 29(5), 285-299.
- 박서연, 정영숙 (2010).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

- 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17-32.
- 서미정 (2011). 아동과 청소년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 차이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학회지*, 32(3), 143-162.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신의진 (2008). 초등학생 심리백과. 서울: 갤리온.
- 여성가족재단 (2010). 서울시 아동청소년안전 및 건강실태조사.
- 오인수 (2009). 스트레스와 학교 괴롭힘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력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2(2), 49-70.
- 유엔, 한국 아동정책조정위 '개점휴업' 우려 (2011. 10. 8). 연합뉴스.
- 정옥분 (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추정옥 (200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 방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08). 통계자료: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
- 통계청 (2011a). 2011년 도시 및 전국 가구 가계수지 동향.
- 통계청 (2011b).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고·육 현황.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영옥 (2002).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아동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미국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61-376.
- 한유진 (2006).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정서이해 및 정서조절 능력이 학령기 아동의 공격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 1-15.
- 황매향, 장수영, 유성경 (2007). 학업우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애착과 학업적 실패 내성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1(4), 1029-1046.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319-361.
- Ainsworth, M. D. S. (1990). Epilogue: Some consideration regarding theory and assessment relevant to attachments beyond infancy.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pp.463-48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llen, J. P. (2008). The attachment system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2nd ed.). (pp.419-435). New York: Gillford.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 Books.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ie, J. D., & Dodge, K. A.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780-8410). New York: Wiley.
-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486-495.
- Earl, R. M., & Burns, N. R. (2009). Experience of peer aggression and parental attachment are correlated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47, 748-752.
- Erikson, E. H. (1950/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Company.
- Finzi, R., Ram, A., Har-Even, D., Shnit, D., & Raffaelli, M. (2000). Attachment styles and aggression in physically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769-786.
- Goldberg, S. (2000). *Attachment and development*. Arnold: London.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 Kerns, K. A. (2008). Attachment in middle childhoo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2nd ed.). (pp.366-382). New York: Gillford.
- Kim A., & Clifford, M. M. (1988). Goal source, goal difficul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as predictors of response to failure. *British Journal Educational Psychology*, 58, 28-43.
- Markiewics, D., Lawford, H., Doyle, A. B., & Haggart, N. (2006).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use of mothers, fathers, best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to fulfill attachment nee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 127-140.
- Michiels, D., Grietens, H., Onghena, P., & Kuppens, S. (2008).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28, 522-540.
- Ping, R. A. (1996). Latent variable interaction and quadratic effect estimation: A two-step technique us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9(1), 166-175.
- Sarracino, D., Presaghi, F., Degni, S., & Innamorati, M. (2011). Sex-specific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security, social values, and sensation seeking in early adolescence: Implications for adolescent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Journal of Adolescence*, 32, 541-554.
- Schumacker, R. E., & Lomax, R. G. (2010).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차원고접수 : 2011. 12. 31

수정원고접수 : 2012. 2. 13

최종게재결정 : 2012. 3. 2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Aggression

-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Attachment to Parents

Chae, Jin-Young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children's attachment to parent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ggression. The subjects were 2,694 fourth-grade children(consisting of 1,435 boys and 1,259 girls) who participated in a Korean Youth Panel Survey(KYPS) in 2004.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s, Cronbach's reliability coefficient, skewness, kurtosis, and Pearson's correlations using the SPSS 19.0. In addition, Ping(1996)'s two-step approach was adopted in order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through AMOS 7.0. The principl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aggression reveal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tress, but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attachment to parents. Second, the proposed model, as revised,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illustrated the fact that children's attachment to parents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ggres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hildren's secure attachment to their parents reduced the negative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on aggression.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academic stress, aggression, attachment to parents, moderating effect